

근래에 일본이 돈육가격의 하락으로 양돈업자가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일정 돈육수입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는, 돈육 가공공장에서 일정한 규격과 품질의 지육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 양돈인들이 좋은 통일된 규격의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수출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돈은 우리 입맛에 맞게 가공하여 국내에서 소비해 나가는 것이 양돈에 종사하는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며, 그와 함께 국내 돈육가격을 안정시켜 개개인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길임이 자명하다.

전국 양돈인의 지혜와 협력을 「월간양돈」을 주체로 한데 모아 오늘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하지만, 보다 긴 안목으로 한국 양돈의 미래의 문제를 다루어 내일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

「월간양돈」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여러가지 어려운 출판 여건속에서도 한호의 결간도 없이 7년동안이나 양돈 전문지를 이끌어오신 양돈협회 관계자와 알찬 기획과 편집으로 좋은 내용을 담고자 노력해온 편집자 여러분의 노고에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돌이켜보면 지난 7년간은 우리나라 양돈발전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때였다고 생각한다. 「월간양돈」지가 창간되던 '79년은 양돈업계에 있어서는 미증유의 공황시기였다. 급격히 증가한 사육두수와 취약한 소비기반의 불균형으로 양돈산업은 뿌리까지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 돼지고기 1근이 배추 한 포기 값에도 미치지 못했고 애써 생산한 자돈을 산에다 그냥 버려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양돈발전의 등대 역할을 하고자 고고성(呱呱聲)을 울린 것이 「월간양돈」지였다.

그리고 7년! 우리의 양돈은 그동안 튼튼한 체질을 가진 성돈으로 성장했다. 농가 부산물이나 부엌의 찌꺼기로 돼지를 기르던 부업양돈의 시대에서 한 농가에서만 수천두를 사육하는 전업내지 기업형태의 축산으로 발전해 왔고 「여름철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한약과 돼지고기는 상극이다」 등등의 미신적 고정관념까지를 타파하고 하절기의 비수요 소비수준과 동절기의 소비수준에 기복이 없는 대량 소비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와같이 우리의 양돈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는 전국 방방곡곡의 돈사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양축가 제위의 노력이 근간을 이루었거니와 이 중 상당부분이 「월간양돈」지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꼭 읽는 잡지가 되어야...  
보다 많은 양돈인들이 명예

시기적절한 사양관리와 질병관리의 기술정보 제공으로 양돈기술의 선진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다해왔다. 대대적으로 능력검정사업의 중요성을 계몽함으로써 국가적 검정사업의 조기정착에 노력하였고 지속적인 소비홍보를 전개하여 새로운 돈육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돈육이 가진 식품성 우수성 제고(提高)에도 큰 몫을 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신제품을 널리 고지(告知)할 수 있는 주요 광고매체로서의 역할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뜻과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우리 한국 바이엘화학은 우수한 동물약품 생산으로 양돈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역가높은 바이오백 백신을 위시해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우수 동물약품을 생산하므로써 양돈 질병퇴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부설 동물의약연구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치료체제 확립과 우리의 풍토에 맞는 신제품 개발에 진력(盡力)하겠으며 임상병리실험실을 이용하여 약품의 남오용을 막을 수 있는 각종 검사 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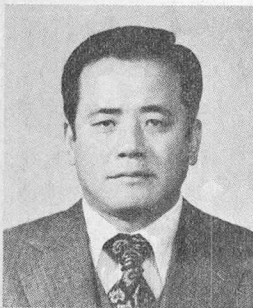
이제 창간 7주년을 맞는 「월간양돈」지의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월간양돈」지를 아끼는 충정에서 몇 가지의 당부를 드린다.

첫째, 「월간양돈」은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전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무계획한 사육두수의 증가는 새로운 불황을 불러올 수가 있다. 수요와 공급원칙이라는 경제학의 원론에 입각에서 공급과잉이라는 공동피해의 원인 제거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월간양돈」지를 보다 많은 양돈가들이 읽고 실제적으로 양돈사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부수의 증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안다. 이는 보다 많은 양돈인들이 양돈협회 회원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현재의 발간부수로는 일부 독자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바 부수를 증가하여 전 양돈인들이 읽는다면 우리나라의 양돈사업은 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월간양돈」지는 양돈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언론 매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한 개의 농장, 양돈인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 힘이 뭉치면 큰 힘이 된다. 「월간양돈」지는 이 뭉치는 힘의 구심점으로 존재하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월간양돈」지의 창간 7주년을 축하한다. \*



김길원

(한국 바이엘화학(주)  
대표이사)